

석사학위 논문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 간 관계 연구

2019년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김 가 람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지성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 간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Home Childcare  
Allowance and Parenting Efficacy

2019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김 가 램

석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김지성

#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 간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Home Childcare  
Allowance and Parenting Efficacy

위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전공

김 가 램

김가람의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9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 간 관계 연구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복 지 학 과  
사 회 복 지 상 담  
김 가 람

양육수당정책 도입 당시 양육수당은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속한 24개월 미만 영아만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였다. 한편 2012년, 2013년에 걸쳐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양육수당정책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2013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이 속한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정책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어떤 문제점 및 개선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 중이며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남양주 및 구리시에 위치한 보육시설 네 곳의 도움을 받아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배부한 설문지는 총 250부로 통계에 유효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28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특성 가운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육효능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 ‘학력’과 ‘자녀 수’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특성에서 보면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왕성한 연령대인 30대에게서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의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수의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에 대한 낮게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수당정책은 양육에 일정한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인 만족도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기반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지원정책만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관을 설립하여 출산율 장려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육수당정책이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지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잠재적 문제 및 근본적 원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금전적 효과 중심의 양육수당정책이 갖는 물질적 효능감의 한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이 갖는 정책의 효과성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의 산물로 등장한 양육수당정책은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양육지원에 대한 ‘국가책임론’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녀양육이 개별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국가책임론이 시대적으로 적합한 흐름이라 해도 비현실적이고 외형적인 선심성 정책이 양육포기에 가까운 부모의 역할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양육수당정책, 양육효능감, 정책만족도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5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양육수당정책 .....	7
1. 양육수당정책의 개념 .....	7
2. 한국 및 주요국의 양육수당정책 비교 .....	9
제 2 절 양육효능감 .....	17
1. 양육효능감 정의 .....	17
2. 양육효능감과 유아 발달의 관계 .....	19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20
1. 양육수당정책 .....	20
2. 양육효능감 .....	22
3. 보육 관련 정책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 .....	25
제 3 장 연구 방법 .....	28
제 1 절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	28
1. 연구 모형 .....	28
2. 연구 가설 .....	29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수집절차	30
3.	측정도구	30
제 4 장	분석 결과	34
제 1 절	표본의 특성	34
제 2 절	기초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	37
1.	기초통계량 분석	37
2.	집단 간 차이 분석	41
3.	신뢰도 분석	48
4.	요인 분석	51
제 3 절	회귀분석	55
제 5 장	결론	57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57
제 2 절	연구의 함의	59
제 3 절	연구의 한계	62
참 고 문 헌		63
부 록		71
ABSTRACT		76

## 표 목 차

[표 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내용 .....	2
[표 2-1] 연도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	11
[표 2-2] 국가별 양육수당 지급 현황 비교 .....	16
[표 2-3] 보육 관련 정책과 양육효능감 관련 선행연구 .....	26
[표 3-1] 측정도구의 구성 .....	31
[표 3-2] 설문 문항 .....	33
[표 4-1] 표본의 특성 .....	35
[표 4-2] 변수별 기술 통계량 .....	37
[표 4-3]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기술 통계(문항별) .....	38
[표 4-4] 양육효능감 기술 통계(문항별) .....	39
[표 4-5] 연령대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	42
[표 4-6] 종교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	43
[표 4-7] 학력수준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	44
[표 4-8] 근로형태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	45
[표 4-9] 소득수준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	46
[표 4-10] 자녀의 수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	47
[표 4-11]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신뢰도 분석 .....	48
[표 4-12]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항목 총계 통계량 .....	48
[표 4-13] 양육효능감의 신뢰도 분석 결과 .....	49
[표 4-14] 양육효능감의 항목 총계 통계량 .....	50
[표 4-15]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성분행렬 .....	51
[표 4-16] 양육효능감 성분행렬 .....	52
[표 4-17] 양육효능감 요인 분석 결과 .....	53
[표 4-18]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수당만족도의 회귀 분석결과 .....	56

# 그림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	28
---------------------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1년 1.24명에서 2012년 1.30명 수준으로 서서히 회복하다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 아래인 1.19명으로 다시 떨어졌다. 급기야 2017년에 들어서 1.05명 수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인 1.67명보다 크게 낮다. 이에 우리 정부는 보육정책을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정성호, 2012). 이러한 국가의 관심으로, 기존에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아동 보육정책을 2002년 이후에는 고령화, 노동 시장구조 재편과 가족구조 변화라는 새로운 방향의 사회정책으로 재구성하고 있다(송다영, 2009). 즉 과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공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보육서비스의 유형이나 재정적 제공 방식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금지원 형식의 보육정책은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다. 보육료는 자녀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 양육수당정책은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정책은 2009년 도입된 이후 보육료 정책과 비교하면 소극적으로 확대 및 운영됐다. 하지만 아이의 양육은 양육의 형태가 어떠한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보육료를 지원받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및 집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형평성 문제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시설의 가수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김송이·이혜숙, 2014). 그로 인해 2013년부터 양육수당정책의 수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2013년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보건

복지부, 2013).

보육료의 경우 각각, 만 0세 최대 45.4만원, 만 1세 최대 40만원, 만 2세, 최대 33.1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대상 만 3~5세에게는 22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해도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까지는 15만원, 24~86개월까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내용

구분	대상	지원내용
보육료	만 0세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반) 35만4,000원
	만 1세	(종일반) 40만원 / (맞춤반)31만1,000원
	만 2세	(종일반) 33만1,000원 / (맞춤반)25만8,000원
	만 3~5세	22만원
양육수당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24개월	15만원
	24개월~86개월	10만원

\*출처: 보건복지부, 2019.

한편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에 관련된 연구는 부모가 자신의 양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육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같은 양육의 인지적인 요인을 설명하고 기술하는데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전주혜·박정윤, 2010). 양육의 인지적 요인은 양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신장시키고 양육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설명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됐다. 또한 부모 개인의 양육 행동과 자아 형성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7; 최형성, 2002에서 재인용).

이렇게 양육의 인지적 요인을 연구하는데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서의 부모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다양한 양육 행동의 근본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인지적 구조를 탐색하게 되었다(고을희, 2001).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을 볼 때, 현재까지 알려진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와 가치, 또한 그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능력에 관한 지각인 양육효능감 등 개인의 내적 및 인지적 측면의 역할 고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안지영, 2002).

부모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양육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며(이경하, 2009), 부모의 인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전은영, 2004). 또한 어머니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체이며 영아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인적 환경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기민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자녀 발달의 전반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경하, 2009). 이처럼 다양한 보육정책이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책효과에도 연관될 수 있다.

아동 양육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마다 도입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 합의의 정도에 따라 다양성을 띠게 된다. 즉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의 인식이 어떠한가 혹은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는 어떠한지가 정책 지원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9년 7월부터 시행되어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양육수당정책의 주요 목표인 ‘건강한 자녀의 건강한 양육’이라는 가치의 중요한 구성요소라는 점에서 양육효능감의 개념은 중요성을 갖는다(윤나리, 2014).

또한 양육수당정책 등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건전한 아동 발달,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소득재분배, 출산율 제고, 미래 인적자본의 확보, 부모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요구된다. 하지만 영아의 경우 대다수 가정이 가정 내에서의 양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보육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육수당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양육비 부

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양육수당 지원대상의 범위와 급여액 수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김정현, 2013).

양육수당정책은 국가 무상보육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에 좀 더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유해미 외, 2011).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 양육수당정책의 효과성을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부모의 양육효능감의 관계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인간의 발달에는 출생부터 성장까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 요인이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중 인간이 출생하여 가장 먼저 관계를 맺게 되는 가정환경은 평생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건강한 가치와 신념, 자녀에 대한 양육관은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적 풍토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출산율 저하, 여성 취업률 증가, 핵가족화 등의 사회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에는 가정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자녀 양육기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세대 구성과 핵가족화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출산, 양육, 정서, 여가, 경제, 사회화 등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류현수·이정숙, 2006).

자녀 양육기능의 약화는 심리·정서적 기능 수행과 사회화 기능에 있어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즉 부모의 역할에 따른 혼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자신감 결여 등은 자녀들의 심리적·사회적 부적응 및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류나미·윤혜미, 2007; 최미경 외, 2008).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양육효능감 강화와 자녀 양육기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영유아가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의 경제적 측면의 문제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신유정, 2008), 자녀 양육 환경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신동주·신현정, 2008).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상당수가 자녀 양육의 심리적 및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적절한 수준의 양육효능감 및 태도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잠재적 변수 중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황보민주, 2010)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가 받는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탐색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그들의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양육수당정책

#### 1. 양육수당정책의 개념

##### 1) 양육지원정책

양육지원정책은 지원 주체에 따라 국가·정부 차원의 지원과 개인·기업 차원의 지원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양육지원은 정부 혹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주로 재정적 측면에서 이뤄지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귀결될 수 있는 정책을 기획·조정 및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박보영, 2006). 반면 개인·기업 차원의 양육지원은 부모 이외의 기관 혹은 타인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양육을 위해 채용된 개인 혹은 양육기관이 제공하는 아동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 즉 사회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한윤옥, 2012).

양육지원정책이란 양육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국공립 보육 시설의 운영, 민간보육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수급권자에게 직접적 양육수당 지급 및 양육담당자인 취업 부모에 대한 근로 환경 개선 등의 형태로 드러나는 일련의 지원행위를 의미한다(김효진, 2012). 양육지원정책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국가가 현금과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예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가족수당, 아동 보육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들 수 있다(김현미, 2005).

아동 양육의 대표적 정책으로는 아동수당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들 수 있다. 두 가지 유형의 수당 모두 아동이 있는 가정을 경제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의 정책 지향성 및 특

별히 연관된 문제에 있어 두 가지 수당은 확연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홍승아, 2011).

## 2) 아동수당정책

아동수당정책은 우선 아동 양육에 따르는 개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기적 현금 지급 사회보장급여이다. 즉 인구학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일정 기준의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보편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제공된다(Gilbert& Terrell, 1998; 홍승아, 2011에서 재인용).

아동수당정책 개념에 대해 심미례(2007)는 아동을 양육한다는 조건으로 육구의 확인이나 자산을 조사하지 않고 보호자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분을 지급하며 가족의 생활수준 유지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아동수당정책은 아동을 교육하고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족수당이라고도 칭한다.

## 3) 양육수당정책

양육수당정책은 영유아의 안위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여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신윤정 외, 2009).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정부 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다(보건복지부, 2019).

양육수당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양육자의 양육 노동에 대한 임금 개념의 지원이다. 양육수당정책은 양육 노동을 일정한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홍승아, 2011).

또한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양육수당정책으로 정의하는 연구도 있다(최은영, 2010). 양육수당정책을 시행 중인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다. 이들 국가의 양육수당 정책은 대부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부모 양쪽, 혹은 한 사람이 노동을 멈추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양육수당정책과 유사하다. 양육수당정책은 부모가 아동의 양육기 초기에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및 시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양육자에게는 경제적 소득의 일부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고은혜 외, 2015).

## 2. 한국 및 주요국가의 양육수당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의 지급기준은 대상 아동의 나이가 만 0세~5세에 속하면, 부모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급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아이에게 지급되기에 보육서비스를 대체하는 성격을 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지급기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서문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각 나라의 양육수당정책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보육서비스를 대체하는 성격의 양육수당정책과 두 번째는, 어머니의 근로 급여를 대체하는 양육수당정책의 형태이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첫 번째 기준에 해당하고,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두 번째 기준에 해당한다. 한국 및 각국의 양육수당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

한국의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보육료 지원 시작 및 확대 과정과 양육수당정책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두 제도의 유기적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보육료 복지정책의 시작

1999년 발생한 ‘영철·혜영 남매 화재 사망 사건’은 요보호 아동의 초기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성문화하고 보육료의 지원정책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저소득가구의 영유아와 부모가 없는 영유아로 제한하여 보육료를 지원했고 해당 아동이 이용 중인 보육시설에 직접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다(송다영, 2010). 이후 참여정부에서 보육정책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예산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이에 2004년 보편주의 보육이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제1차 육아 지원정책, 2005년 제2차 육아 지원정책에 이어 2006년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새싹플랜’,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의 ‘새로마지플랜’ 등 보편적 보육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이진숙·이슬기, 2013). 그 결과 보육료 지원정책 수혜 대상 아동 범위가 만 5세 아동에서 전 연령의 아동으로 확대되었고, 소득수준 기준에서는 저소득가구에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11년에 들어 가구소득 기준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2년 만 0~2세,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을 소득 기준에 적용치 않고 기본보육료가 전면 지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2013년부터 만 3~4세의 아동을 포함,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가구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2010, 2011, 2012, 2013).

## (2) 양육수당정책 도입 및 현황

양육수당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정책과 연관되어 있다. 보육료 지원정책이 대상 아동이 등록된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보육정책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지적되었고(송다영·이선영, 2016),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통해 양육수당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초기에는 보육료 지원 정책과 같은 기준으로 혜택이 지급되지 않았다.

정책 도입 당시 양육수당정책의 수혜 대상은 보육료 지원 기준과 달리 ‘차상위계층 이하인 가구’에 속한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월 10만원씩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면서 양육수당정책의 수혜 대상 역시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백선희, 2012).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3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해당 연령의 아동에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취학 자녀를 둔 가정에선 선택에 따라 보육서비스와 아동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구체적 지원내용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표 2-1] 연도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연도	연령	보육료	양육수당
1999	만 0-2세	법정최저생계가구: 전액	-
	만 3-4세		
	만 5세		
2000	만 0-2세	-	-
	만 3-4세		
	만 5세	법정저소득층: 전액 농어촌, 도시지역 소득층 가구(40%): 전액	
2008	만 0-2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차등지원	-
	만 3-4세		
	만 5세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기본보육료(전액)	
2009	만 0-2세	소득하위 70% 이하: 차등지원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10만원(만 0~1세)
	만 3-4세		
	만 5세	소득하위 70% 이하: 기본보육료(전액)	-

2010	만 0-2세	소득하위 70% 이하: 차등지원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10만원(만 0~1세)
	만 3-4세		
	만 5세	소득하위 70% 이하: 기본보육료(전액)	-
2011	만 0-2세	소득하위 70%이하: 기본보육료(전액)	차상위계층 이하가구: 월 10~20만원
	만 3-4세		-
	만 5세		-
2012	만 0-2세	소득하위 70%이하: 기본보육료(전액)	차상위계층 이하가구: 월 10~20만원
	만 3-4세	소득하위 70% 이하: 차등지원	-
	만 5세	소득하위 70%이하: 기본보육료(전액)	
2013	만0-5세	전체 가구: 기본보육료(전액)	전체 가구: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7)

## 2)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부모휴가(약 9개월) 및 유급출산 후 만 3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 보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부모가 직접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거나 보육시설을 부분적으로 이용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199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보육 수당 지원방식의 하나다. 사립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수당형태의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고용의 안정이 보장되는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3세 되는 시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이때 본인이 직접 자녀를 양육하기 희망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만 3세 미만이나 취학 연령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이 기간에는 부분적인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양육수

당의 지급조건은 부모의 직접 양육이 아닌, 공적·사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부모나 보육시설이 아닌 보육모를 이용할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모든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 이외에 가족의 규모나 기존 월급에 따라 금액이 증액된다. 양육수당은 부모휴가 및 출산 수당과 다르게 조세 대상 수입으로부터 사회보험기관에서 지급하며,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한다(서문희, 2011).

2018년도 기준 기본 양육수당은 33.67유로이다. 자녀의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수가 증액되며 만 3세 이하인 자녀가 한 명 추가될 때마다 100.79유로, 만 3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 추가되면 64.77유로가 증액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증액되는 금액은 한 명의 자녀에게 지급되는데 매달 180.17유로가 지급된다.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가능하며 94.61유로가 매월 지급된다.

### 3)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의 육아 휴가가 끝난 후 부모에게 만 1세의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 보장을 위해 1998년부터 현금 수당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9년부터 아이를 직접 돌보고자 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더 큰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보육 시설을 이용할지 혹은 직접 양육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서문희, 2011). 본인의 집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원하는 부모 자신이나 가족, 자신의 아동을 직접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가정에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 정책이다(문선화, 2011).

지원대상은 만 1세의 자녀를 보육 시설에 등록하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최대 11개월까지 지급된다. 이 수당은 국가가 지정한 보육 시설을 주당 시간제로 33시간 이하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12년 8월 1일부터 적용이 축소됨으로 인해 만 1~2세 아동에게 최대 23개월까지 지급되던 것이 11개월로 줄어들었다. 또한

주당 보육 시설 이용시간에 따라 다양한 수당을 지급했지만 2012년 8월 이후 전체 혹은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현금 수당 금액은 국회에 의해 정해지며 비과세 대상이다. 2011년 기준으로, 공공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월 3303크로네를 지원받는다. 본 수당은 아동법에 근거하고 있다(한경헌, 2010).

#### 4) 프랑스

프랑스는 보육서비스를 취업 여성의 만 0~2세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만 3~5세 대상으로는 공화주의적 철학에 기분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의 유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아 보육 지원은 부모 직접 양육, 시설 보육, 재가 보육 중 양육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국가가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이문숙, 2018).

프랑스는 부모에 의해 직접 양육되는 만 0~2세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취업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 휴가 후 직장에 돌아오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 6개월 동안 육아휴직 수당이 지원된다. 또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 연령 만 3세까지 지원된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경우 더 높은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짧은 육아휴직 기간 받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손동기, 2017).

프랑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sup>1)</sup>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저출산 정책의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이러한 정책적인 성공 배경에는 국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과 가족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영유아 보육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이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프랑스 보육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수 있다(조정신·황성원, 2004).

---

1)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7명이다(2018년, OECD Family Database).

## 5) 독일

독일은 양육수당정책(Kindergeld)이 시행되고 있다. Kindergeld는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와 생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양육권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Kindergeld만으로는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아동수당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또한 고소득자의 경우 Kindergeld 대신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아동 세금공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유럽 중 아동수당이 세금공제 혜택 형태로 지급되는 유일한 국가이다(조성혜, 2007). Kindergeld는 보편주의적 성격의 복지정책으로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가족성과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소득분배를 국가적 정책 차원에서 소가족을 위한 재분배의 도구로 사용한다(박채복, 2018).

독일은 보편적 아동수당과 동시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1주일에 30시간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부모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만 2세가 되는 시기까지 최고 307유로, 연간 7,368유로를 받는 정규 급여와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시기까지 매월 최고 460유로, 연간으로 최대 5,520유로를 수급할 수 있는 급여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연방 주마다 각기 다른 기간과 액수에 대한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이진숙, 2017). 그 결과, 현재 독일의 양육수당은 바이에른과 작센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양육수당은 만 1세 이하(때에 따라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바이에른에서는 150유로, 작센에서는 주 양육수당으로 첫째 자녀에게는 150유로, 둘째 자녀에게는 200유로, 셋째 자녀에게는 300유로를 지급해 주는 현금급여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의 양육수당은 보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이진숙, 2017).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별 양육수당정책 대상 및 지원 금액을 한국의 현황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국가별 양육수당 지급 현황 비교

국가	대상	지원금액
핀란드	만 3세 이하	45만원
노르웨이	11개월 이하	45만원
프랑스	-	-
독일	만 1세~3세	20만원~40만원
한국	만 6세 이하	10만원~20만원

\*출처 : 보육정책 관련 선행연구에서 양육수당 부분을 발췌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2019년 6월 기준 환율로 지원금액 변환

## 제 2 절 양육효능감

### 1. 양육효능감 정의

가정은 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첫 번째 생활환경이다. 자녀에게 부모는 가정에서 양육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유아가 처음 만나는 환경이기도 하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교육의 과정, 양육과 보호를 거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사회화를 하게 된다. 부모는 유아에게 삶의 양육 행동과 모델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자극과 발달을 통해 현재 속해있는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 규범을 전하게 된다(이희선, 1997).

어린 시절 유아가 느낀 양육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정신 분석학자 Freud는 생후 만 5~6세까지의 경험이 성격 형성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아기까지의 경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의한 것이고, 결정적 시기인 유아 인생 초기 부모 양육방식과 태도가 후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고인숙 외, 2010). 행동주의 심리학자 Watson(1930)은 본인에게 신체가 건강한 12명의 아이를 양육할 기회를 준다면, 무작위로 한 명을 선택해 그 아이를 기호, 재능, 능력, 성향, 적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의사, 변호사, 상인, 예술가 심지어 도둑이 되도록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고인숙 외, 2010에서 재인용).

양육효능감은 부모가 자신의 양육 관련 과제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감과 판단으로, 부모 역할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문제나 어려움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며 양육 행동의 중요한 관계를 가진 요소이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지녀야 할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높은 수준의 양육 행동을 하게 되며 자녀의 인지, 신체, 사회, 언어, 정서발달을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유아가 직면하는 문제와 갈등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반대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수준의 양육지원을 할 수 없으며 무기력한 양육 행동을 보이게 된다(김진이, 2018).

양육효능감이란 Bandura가 정의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대입시킨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andura에 의하면 효능감이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적·정서적·인지적 기술을 복합적으로 조직하고 효과적으로 배합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생산적 능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과정 실행능력과 조직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제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능감 이론은 짧은 시간 안에 교육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는 양육 영역에 확대 적용되어 더욱 광범위하게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은 ‘양육신념(parent beliefs)’, ‘양육유능감(parent competence)’ 등 유사한 개념과 혼용되어왔다(이혜영, 2019).

Gelfand와 Teti(1991)는 양육효능감을 능률적으로 양육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으며, Schel과 Rieckman(1998)은 부모의 양육 과업을 완수하고 유아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라고 정의하였다(김시내, 2011에서 재인용). Coleman과 Karrake(1998)은 부모가 스스로에 대해 양육과 관련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자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Luster와 Kain(1987)은 양육효능감에 대해 부모가 성공적으로 양육 과업을 마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으로서 자녀의 행동을 적절히 관리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양육효능감이란 부모로서 자신의 양육에 관련된 수행능력에 관한 판단과 기대로서 부모의 역할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자녀 양육과 연관된 문제와 어려움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양육 행동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으로서 자녀 양육을 주관하는 부모가 자녀야 할 능력에 대한 부모의 자기평가라고 볼 수 있다.

## 2. 양육효능감과 유아 발달의 관계

1990년대 전후를 기점으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해지고, 2000년대 이후 양육 행동에 선행되는 부모의 가치, 신념, 효능감, 목표 등 인지 변수 연구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Johnston과 Mash(1989)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자녀 양육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자녀의 어려움 혹은 문제 해결에 대해 확신하고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자각하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효능감을 부모 역할 수행 차원에서 봤을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고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의미하고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수행에는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매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Mize & Petti(1997)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과 놀이 상황을 관찰하며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각된 효능감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김진이, 2018에서 재인용). 이들은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긍정적이고 따뜻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바람직한 양육 행동과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일수록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leman & Karraker, 1998; 오혜진·도현심, 2019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개념 형성 등 유아 발달 대부분이 만 5세 이전에 상당 부분 발달 되는데 특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난관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행동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육 행동을 자주 보여주게 되고 독자적인 개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이상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적절한 유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의 양육수당정책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양육수당정책의 정책적 기대 효과 중 하나인 부모의 양육효능감 증진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사례를 위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양육수당정책

양육수당정책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첫째, 가구소득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김두연, 2014; 노혜진, 2016; 윤홍식, 2010; 최상설·홍경준, 2013). 둘째, 어머니의 노동과 관련된 연구(이승재, 2016; 주보혜, 2010; 최슬민, 2014; 허남재·석재은, 2010; 한영선, 2014)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우선 가구소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비교적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이 가정 육아(양육수당정책)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윤홍식(201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직접 양육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최상설·홍경준(2012)의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는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대리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과 직접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는 양육의 형태가 다르고 소득이 높을수록 유형 선택의 폭이 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보육료 지원 액수의 만족도가 다르다고 주장한 김두연(2014)은 높은 소득수준의 가구에서는 0~20만원의 지원액이 양육의 비용적 측면에서 크게 영향 미치지 않지만, 낮은 소득수준의 가구에서는 양육비용 차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양육수당 지원 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높은 소득수준의 가구에서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는다고 해도 가정양육을 선택할 것이며, 만 3~5세의 시기에는 양육수당이 현행보다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보육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은 결과로 봤을 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 양육수당이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것이다.

노혜진(2016)의 연구 결과에서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반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는 직접 양육을 선택하지 않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서비스 선택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사용비율도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제도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양육수당정책이 2009년에 시행되기 전까지는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또한 양육수당정책이 2013년 대폭 확대되기 직전까지 양육수당정책 대상 확대에 관한 주제의 연구가 증가 되었다.

양육수당정책 수혜 대상이 확대되기 전 양육수당정책의 필요성에 관해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유해미 외(2011)가 있다. 이들은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개선방안과 효과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양육수당정책의 정책 구조 및 원리를 파악하고 양육수당정책의 수요와 효과를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당시 양육수당정책의 경우 대상 연령을 양육하는 가정에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규모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되던 시기여서 선별적인 정부 차원의 현금지원 정책효과 미흡을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자격을 기관 미이용 가정으로 한정할 경우 양육수당정책의 취지인 서비스 대체가 아닌 보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유해미 외, 2011). 즉 수급요건을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가정 내 보육이 불가피한 아동들에 한정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전환 방안을 제시하며 기관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를 둔 일하는 부모들에게 추가 급여를 지급하여 가정 내 보육수요에 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문선화(2011)의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무상보육제도와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보육은 국가책임이라는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다. 저출

산 시대를 맞이한 현실에서 국가가 어느 수준까지 보육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논의한다.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진 당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근거로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동건전육성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매우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구 증가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양육수당정책을 도입한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아동 복지적인 관점인지 행정부의 국민 달래기의 방편인지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육수당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2013년 3월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 양육수당정책의 대상 계층 확대와 양육수당정책의 금액을 대폭 인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 지급 액수가 보육료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것이다. 또한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양육수당정책 도입 목적이 불명확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 2. 양육효능감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는 부모의 나이, 취업 여부와 수준, 교육수준,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등 다양한 변수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태형(2002)의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오랜 기간 교육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 양육정보 획득의 양이 증가하며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해석했다. 신숙재(1997)는 남편이 부모로서 제공하는 양육에 대한 의견 일치와 협력의 정도가 어머니가 아들을 잘 양육 및 훈육하며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과 달리 아들을 양육하는 경우 남편이 부모로서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낮아지고, 이를 매개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강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문혁준(1999)은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직업의 질에 따라 자신의 부모 역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자각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긍정적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인옥·이경옥(1999)의 연구는 부모가 아동 중심적 사고를 하고 성숙주의적 교육신념<sup>2)</sup>을 가진 경우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반면 성인 중심적이고 행동주의적 교육신념을 가진 경우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별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서영·정옥분(1999)과 양미옥(2004)의 연구에서는 여자아이를 자녀로 둔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태형(2002)은 부모의 사고 양식과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사회적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연구에서 양육효능감과 사회적인 능력, 즉, 사회적 과민성, 활동성, 안전성, 협조성, 자기 중심성의 영역에서 상관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김선영(2004)은 부모가 자각하는 가정의 건강성 정도는 양육효능감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자녀의 학습 관련 기술 및 행동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봤다.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직접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효능감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윤진(2007)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구분하였다. 첫째, 유아와 관련된 변수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연령, 기질, 성, 출생순위를 영향 요인으로 제시하였고(최형성, 2002; 홍계옥, 2003), 둘째, 스트레스, 교육수준, 결혼만족도, 연령, 취업 여부 등과 같은 부모 본인과 관련된 요인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문태형, 2002; 문혁준, 1999; 안지영, 2000). 셋째, 가족의 수입 수준, 자녀의 수, 사회경제적 지위, 배우자 혹은 주변인들의 사회적 지원과 같은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수가 양육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도 있다(박영애 외, 2003; 신숙재, 1997; 우희정 외, 1994; 이재림, 2001).

---

2) 성숙주의적 교육신념은 아동 발달이 아동의 내재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과 순서에 따라 일어나며 연령에 따른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해 교육이 이뤄진다고 믿는 교육신념이다(전인옥·이경옥, 1999).

양육효능감과 학력 간 관계에 대해 김향은(1999)과 문태형(2002)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에 관한 높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고,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더 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양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많으므로 양육효능감이 증진된다고 보았다. 또한 김성숙(2009), 최해숙(2008)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도 증가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정신(2009), 이정선(2009)의 연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학력은 양육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변수 중 하나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직업 질의 수준이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김미숙·문혁준(1999)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부모의 역할 수행을 얼마나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지가 양육형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안지영(2000)의 연구에는 직장을 가진 어머니가 비직장인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복희 외(1994) 또한 직장을 가진 어머니가 비직장인 어머니보다 역할의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최형성(2002)과 정혜인(2003)은 미취업모가 시간제 및 전일제로 일하는 취업모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발견했으며,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 양육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김미숙·문혁준, 2005; 박정아, 2007)도 있다. 이병례(2007)는 취업모의 부모 역할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합리적·적극적·애정적 참여 태도로 양육 행동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황보민주(2009)는 가족 친화 정책의 만족도에 따른 양육효능감 정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 친화 정책의 만족도는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족 친화 정책을 활발히 이용하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이혜영(2019)은 국가 보육 시설의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부모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보육 시설의 자녀 양육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참여 후에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하고 나타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육지원 프로그램이 부모 양육효능감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고 보았다. 박성신(2007)은 뇌병변장애를 앓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방문 지원 정책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서 방문 지원 서비스를 받은 실험집단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통제 집단과 비교해 양육효능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고, 방문 지원정책은 뇌병변장애 아동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임한나(2011)는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참여하지 않은 부모 간의 양육효능감 차이를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양육효능감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 차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지원이 양육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김혜자(2009)는 자녀 양육지원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참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증진과 자녀 양육스트레스 해소에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미나·이소은(2018)의 연구는 보육 시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참여 수업, 부모교육, 부모면담 등의 지원정책이 양육효능감을 비롯한 긍정적 양육 태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양육 죄책감을 경감시킴으로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하며 영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 형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 아니라 양육신념, 양육 스트레스 등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거나 양육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인지 능력 발달 등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김현미, 2004), 양육효능감은 양육신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3. 보육 관련 정책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

다음은 각종 보육 관련 정책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

토하고자 한다. 직접 양육수당정책과 양육효능감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어 큰 틀에서 보육정책과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및 양육효능감 간 관계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표 2-3] 보육 관련 정책과 양육효능감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년도)	대상	선행변수	결과변수	결론
송미혜 외 (2006)	만 4~5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300명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	정적 관계
		양육스트레스		부적 관계
이남경 (2012)	직장보육시설 이용 취업모 290명	어린이집 만족도		정적 관계
위순영 외 (2016)	만 2~4세 발달지체 유아, 어머니20쌍	놀이기반 양육지원 프로그램		유의한 상관 없음
이혜영 (2019)	만 4~5세 유아, 부모20쌍	자녀양육 지원프로그램		정적 관계
김현정 (2019)	수도권 취업모 240명	어린이집 만족도		정적 관계
박성신 (2007)	수도권 뇌병변 장애 영유아, 어머니20쌍	뇌병변장애 영유아를 위한가정방문 지원		유의한 상관 있음
최현성 (2002)	서울시내 5, 6학년 아동 어머니500명	사회적 지원		유의한 상관 있음
임희수 외 (2018)	2000년~2018년 석박사학위논문, 학술논문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		유의한 상관 있음
오현아 (2013)	보육서비스 중인 학부모 250명	무상보육만족 도		출산의지
김미나 외 (2018)	36개월 이하 자녀 어머니 292명	보육서비스 만족도	후속출산의도	있음
		양육효능감		없음

위순영 외 (2016)	만 2~4세 발달지체 유아, 어머니20쌍	놀이기반 양육지원 프로그램	유아 상호작용행동	정적 관계
이혜영 (2019)	만 4~5세 유아, 부모20쌍	자녀양육 지원프로그램	또래유능성	정적 관계

위 내용에서 각종 보육정책 및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적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일관된 연구 결과(서혜영, 1991; 신숙재, 1997; 최형성, 2002; 류기자, 2006; 송미혜, 2006; 이윤진, 2007)를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사회적인 지원은 양육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정책을 주요 사회적 지원 제도 중 하나로 보고, 국가에서 제공되는 도움의 측면에서 양육수당정책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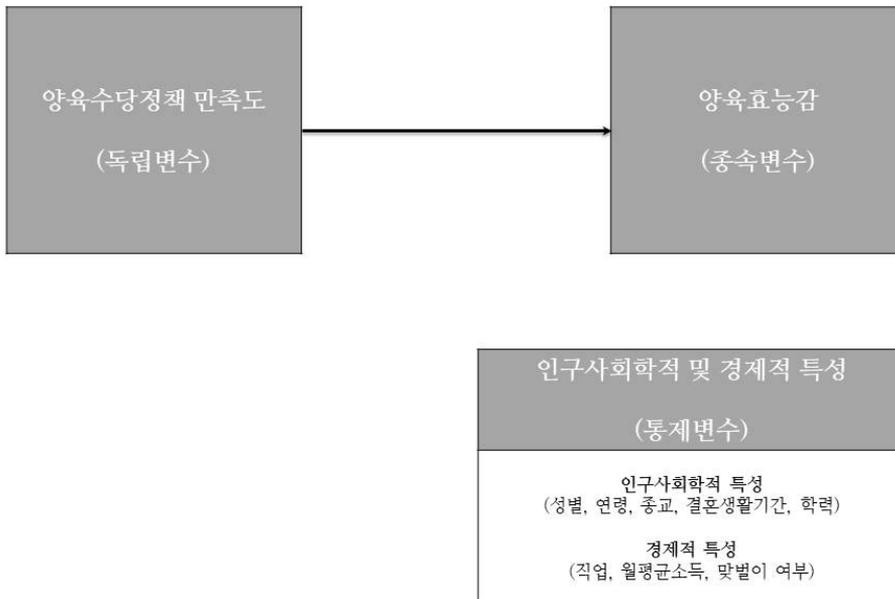
비록 선행연구에서 양육수당정책과 양육효능감 간 관계에 대해 직접 연구된 바는 없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각종 보육정책이 양육효능감, 또한 그 밖의 출산, 양육 관련 요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회적 차원의 보육정책이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비취업모의 자녀는 취업모의 자녀에 비교해 가정양육 선택 비율이 더 높으므로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가정한다(김현정,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정책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 방법

### 제 1 절 연구 모형과 연구 가설

#### 1. 연구 모형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한 연구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이며 종속변수는 양육효능감이다. 통제변수로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성별, 연령, 종교, 결혼생활기간, 학력) 및 경제적 특성(직업, 월평균소득, 맞벌이여부)이 포함되었다.



[그림 3-1] 연구모형

##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가설〉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양육수당정책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양적 조사를 위한 설문 방식을 사용했으며 연구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의 부모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자료 획득을 위한 지리적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거주 중인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거나 수급한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고, 남양주, 구리 지역 내의 어린이집 네 곳의 도움을 받아 표본을 확보하였다.

### 2. 수집절차

본 연구의 설문은 양육수당정책의 혜택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2주간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에 사용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로서 조사자가 접근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대상자 및 기관에 사전 협조를 구하고 연구 목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온라인으로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응답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자동 취합됐다. 회수된 250부의 설문 중 불성실하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설문지 2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효한 228부의 설문을 최종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구성은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측정 문항 5문항, 양육효능감 측정 문항 15문항, 일반적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설문 문항은 양적연

구를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5단계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고 본 설문문의 구성은 [표 3-1]과 같다.

[표 3-1] 측정도구의 구성

구분	변수	문항수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5문항
양육효능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제공하는 양육의 전반적 능력과 지식, 행동	15문항
	자녀의 심·신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 및 능력	
	자녀에 관한 이해와 수용, 의사소통 능력	
	자녀의 지적 학습에 관한 지도 능력 자녀를 통제, 훈육하는 능력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경제적 환경, 자녀 현황 등	10문항
합계		30문항

#### 1)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의 측정은 지원 대상 연령층의 만족도의 정도(대상연령만족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 대상 소득수준 기준의 만족도(대상소득만족도), 현금 계좌이체 방식의 만족도(지급방식만족도), 수당의 지원 액수 및 규모의 만족도(지원규모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신윤정 외(2009)에서 양육수당정책에 대해 시민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지, 유해미 외(2011)의 양육수당정책의 효과 및 정책적 요구를 조사한 설문지, 고은혜(2014)의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 조사 설문

지, 이주연(2009)의 기혼 취업 여성이 가지는 양육의 심리적 부담감과 보육정책 개선방안 조사표, 오현아(2013)의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한 설문지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표 3-2]참조).

문항은 총 다섯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응답 방식은 ‘매우 그렇다’라면 1, ‘전혀 그렇지 않다’라면 5의 Likert식 평정척도로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의 점수 분포는 합산 수치가 높을수록 양육수당정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2) 양육효능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녀가 있는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 문화적 맥락에 맞게 안지영(2000)이 번안하여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애초에 학령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부모의 양육에 관한 자신감을 측정하는 ‘Parenting Confidence Scale’과 부모의 역할에서 자신과 자녀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Under Control Scale’로 구성됐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에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Parenting Confidence Scale’의 15문항 중에서 12문항을, ‘Under Control Scale’의 14문항 중에서 3문항만을 채택하여 총 15문항을 구성하고 사용하였다([표 3-2]참조).

응답 방식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응답 내용이 ‘매우 그렇다’ (1), ‘그렇다’ (2),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지 않다’ (5)로 1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부모 역할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역할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의미의 내용을 담은 문항(3, 5, 7, 8, 9, 10, 14, 15번)은 역코딩하였다.

[표 3-2] 설문 문항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신윤정 외(2009), 유해미 외(2011), 고은혜(2014), 이주연(2009), 오현아(2013)

- 86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차등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정책의 지원 대상에 만족한다.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에 만족한다.
- 대상 아동 부모의 계좌로 현금 지원되는 지급방식에 만족한다.
- 현재 양육수당정책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 만족한다.
- 현재 양육수당정책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 만족한다.

**양육효능감**

Floyd, Gilliom & Costigan(1998)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부모 역할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다.
-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게 한다.
-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이 있다.
-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다르게 키울 것이다.
-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우려된다.
-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 가끔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
-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
- 주변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 제 4 장 분석 결과

### 제 1 절 표본의 특성

본 연구 표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양육수당정책 관련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성별에 따른 특성은 남자 47명(20.6%), 여자 181명(79.4%)로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양육을 맡은 주체가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치중되어 있고 그에 따라 여성의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개선 의지가 비교적 강하여 설문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는 20대 22명(9.6%), 30대 166명(72.8%), 40대 39명(17.1%), 50대 이상 1명(4%)으로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수당정책의 주요 수혜자가 30대와 4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 25명(11.0%), 천주교 22명(9.6%), 기독교 59명(25.9%), 무교 121명(53.1%), 기타 1명(4%)으로 나타나 무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고졸 19명(8.3%), 전문대졸 48명(21.1%), 대학 졸 125명(54.8%), 대학원 이상 36명(15.8%)인 것으로 나타나 대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가진 부모의 비중이 약 70%이다.

직업 및 소득 관련된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있는 가정이 132가구(57.9%)이고, 맞벌이 하는 가정이 96가구(42.1%) 비율로 노동보다는 직접 양육을 선택한 가구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 3명(1.3%), 200만원 이상 91명(39.9%), 300만원 이상 61명(26.8%), 400만원 이상 45명(19.7%), 500만원 이상 28명(12.3%)으로서 평균치는 약 300만원 가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9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3~4인 가구 기준 60%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재 양육하는 자녀의 수는 1명이 131명(57.5%) 및 2명이 86명(37.7%)으

로 합하면 총 95.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과 자녀가 86개월이 지났거나 어린이집에 보냄으로써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사됐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8명(82.5%), 과거에 받았다는 응답은 40명(17.5%)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수급 자녀 나이’ 항목의 경우 선택 항목으로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응답자만 기재를 요청했다.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자녀의 연령대는 만 0~2세(33.8%), 만 2~4세(27.2%), 만 4~6세(17.5%), 만 6세 이상(3.9%)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점차 아동의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양육방식을 선택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표 4-1]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b>성별</b>			<b>자녀의 수</b>		
남자	47	20.6	1명	131	57.5
여자	181	79.4	2명	86	37.7
<b>연령</b>			3명	5	2.2
20대	22	9.6	4명	3	1.3
30대	166	72.8	5명 이상	3	1.3
40대	39	17.1	<b>현재 양육수당 수급 여부</b>		
50대 이상	1	4			
<b>종교</b>			현재 받고 있다	188	82.5
불교	25	11.0	과거에 받았다	40	17.5
천주교	22	9.6			
기독교	59	25.9	<b>양육수당 수급 자녀 나이</b>		
무교	121	53.1			
기타	1	4		만 0~2세	77
<b>최종학력</b>			만 2~4세	62	27.2

고졸	19	8.3	만 4~6세	40	17.5
전문대졸	48	21.1	만 6세 이상	9	3.9
대학졸	125	54.8	<b>결혼생활</b>		
대학원 이상	36	15.8	1~5년	126	55.3
<b>근로형태</b>			6~10년	90	39.5
정규직 근로자	72	31.6	10년 이상	12	5.3
파트타임 근로자	24	10.5			
무직(미취업)	132	57.9			
<b>맞벌이 여부</b>					
안 하고 있음	132	57.9			
하고 있음	96	42.1			
<b>월 평균 소득</b>					
100만원 이상	3	1.3			
200만원 이상	91	39.9			
300만원 이상	61	26.8			
400만원 이상	45	19.7			
500만원 이상	28	12.3			

\*N=228

## 제 2 절 기초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

### 1. 기초통계량 분석

먼저 기술통계 분석결과,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의 평균값은 2.42로 보통(3)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수당정책 만족도는 양육효능감보다 보통(3)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에서 지원 액수에 대한 만족도 문항이 불만족에 가장 가까웠으며 그 밖의 문항은 평균을 웃돌았다. 이상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하면 [표 4-2], [표 4-3], [표 4-4]와 같다.

[표 4-2] 변수별 기술 통계량

변수	측정항목	기술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독립변수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2.42	1.279
종속변수	양육효능감	2.79	1.049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문항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지원방식에 관한 내용의 3번 문항에 가장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반대로 4번 문항, 즉 지원 액수의 정도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2.42로 보통(3)과 그렇다(2) 사이에 위치해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양육수당정책의 지원 금액이 양육효능감을 비롯한 양육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앞으로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금액의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반면에 개인의 계좌로 현금지원 되는 지급 방식에 대해 가장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수혜자들은 무상보육정책(기관에 지급), 아이돌봄서비스(이용금액의 일부를 기관에 지급), 언어발달지원사업(바우처 지원)과 같은 간접적 지원 방식과 다르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기술 통계(문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86개월 미만 모든 아동 지원대상 만족도	1	5	2.43	1.350
2	소득수준과 무관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	1	5	2.33	1.390
3	현금 지원 방식의 만족도	1	5	1.67	1.083
4	지원 액수에 대한 만족도	1	5	3.00	1.302
5	양육비 부담 완화에 대한 만족도	1	5	2.68	1.272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1	5	2.42	1.279

양육효능감에 대한 문항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전체적인 양육효능감은 2.79로 보통(3)보다 조금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 대표적으로 평균치가 높거나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부모 역할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가 가장 적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에 접근하기 쉬워짐으로 인해 사전 지식과 실제 양육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정보 유통경로의 다양화와 편리한 접근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의 평균치 또한 그렇지 않다(4)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양육자가 스스로의 양육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며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긍정적 평균치를 나타낸 문항들을 살펴보면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그렇다(2)에 가장 근접함으로써 아이의 양육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를 선택하면서 책이라는 매개체에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이 다음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많은 양육자가 감정적인 요소를 통제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훈육 태도를 가지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 양육효능감 기술 통계(문항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228	1	5	2.57	.818
2	부모 역할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	228	1	5	4.04	.997
3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게 한다	228	1	5	2.80	1.087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다	228	1	5	2.51	1.136
5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8	1	5	2.14	1.023
6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228	1	5	3.00	1.103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우려된다	228	1	5	2.33	1.139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228	1	5	2.34	1.117
9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228	1	5	3.83	1.123

10	가끔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228	1	5	2.63	1.140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	228	1	5	2.33	1.038
12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	228	1	5	2.69	.927
13	주변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228	1	5	2.83	1.006
14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228	1	5	2.18	1.049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228	1	5	3.64	1.037
<b>양육효능감</b>		<b>228</b>	<b>1</b>	<b>5</b>	<b>2.79</b>	<b>1.049</b>

## 2. 집단 간 차이 분석

주요 집단 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2.927$ ,  $P=0.035$ ), 20대(2.31), 30대(2.62), 40대(2.70), 50대 이상(3.60) 순으로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젊은 층일수록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은 양육효능감에 대한 통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 = 1.791$ ,  $P = 0.048$ ). 20대(2.96)에서 30대(3.09), 40대(3.07)까지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낮은 연령일수록 접하는 양육 관련 정보의 양과 질이 높고 우수한 체력을 바탕으로 양육에 임함으로써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결과 모두 50대 이상 집단의 경우 표본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으며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하였다. 연령에 따른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 4-5]와 같다.

[표 4-5] 연령대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기술통계값			F/유의확률 (P)	사후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화 편차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①20대	22	2.31	0.985	2.927 / .035	①,② > ③,④
	②30대	166	2.62	0.971		
	③40대	39	2.70	0.913		
	④50대 이상	1	3.60	0.000		
	계	228	2.81	0.956		
양육 효능감	①20대	22	2.96	0.460	1.791 / .048	④,① > ③,②
	②30대	166	3.09	0.487		
	③40대	39	3.07	0.399		
	④50대 이상	1	2.40	0.000		
	계	228	2.88	0.448		

응답자의 종교에 따른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인식에 대한 검증 결과,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육수당정책 만족도:  $F=0.975$ ,  $P=0.422$ ; 양육효능감:  $F=1.642$ ,  $P=0.165$ ). 각 종교별 교리와 기타 특징들은 양육에 관련된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종교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기술통계값은 [표 4-6]에 제시되었다.

[표 4-6] 종교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기술통계값			F/유의확률 (P)	사후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화 편차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①불교	25	2.42	1.287	0.975 / .422	
	②천주교	22	2.45	1.124		
	③기독교	59	2.57	0.981		
	④무교	121	2.33	0.882		
	⑤기타	1	1.20			
	계	228	2.41	0.984		
양육 효능감	①불교	25	3.19	0.341	1.642 / 0.165	
	②천주교	22	3.03	0.435		
	③기독교	59	2.95	0.462		
	④무교	121	3.10	0.504		
	⑤기타	1	3.47			
	계	228	3.07	0.474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결과는 [표 4-7]과 같이 요약된다. 학력에 따르는 양육수당정책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양육효능감에 대해서는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오히려 고졸(3.09)보다 전문대졸 집단(3.45)의 양육효능감이 더 낮게 나타났다. 그 후 대졸(2.99) 집단과 대학원 이상(2.78)의 교육수준을 가진 집단은 순차적으로 양육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 졸업 학위를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문태형(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력이 높아 양육에 대한 지식 획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4-7] 학력수준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기술통계값			F/유의확률 (P)	사후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화 편차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①고졸	19	2.45	0.956	1.023 / 0.382	
	②전문대졸	48	2.29	0.871		
	③대학졸	125	2.61	1.051		
	④대학원 이상	36	2.10	0.892		
	계	228	2.36	0.943		
양육 효능감	①고졸	19	3.09	0.358	2.295 / 0.039	④,① > ②,③
	②전문대졸	48	3.45	0.482		
	③대학졸	125	2.99	0.411		
	④대학원 이상	36	2.78	0.652		
	계	228	3.08	0.476		

[표 4-8]은 근로형태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근로형태에 따라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평균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형태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안지영(2000), 조복희 외(1994)와는 상반된 결과이며, 근로형태와 양육효능감과는 관계가 없다고 분석한 김미숙·문혁준(2005), 박정아(2007)의 결과와는 일치한다.

[표 4-8] 근로형태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기술통계값			F/유의확률 (P)	사후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화 편차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①정규직 근로자	100	3.52	1	0.962 / 0.384	
	②파트타임 근로자	24	3.53	0.92		
	③무직(미취업)	104	3.72	0.99		
	계	228	3.59	0.97		
양육 효능감	①정규직 근로자	100	2.98	0.47	1.620 / 0.201	
	②파트타임 근로자	24	2.95	0.48		
	③무직(미취업)	104	2.86	0.46		
	계	228	2.93	0.47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4-9] 참조) 수당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양육효능감이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는 직접 양육을 선택하지 않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노혜진, 2016)에서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서비스 선택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수당정책에 한정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표 4-9] 소득수준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기술통계값			F/유의확률(P)	사후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화 편차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①100만원 이상	3	2.73	1.102	0.122 / 0.974	
	②200만원 이상	91	2.34	0.785		
	③300만원 이상	61	2.42	0.974		
	④400만원 이상	45	2.43	1.095		
	⑤500만원 이상	28	2.40	1.004		
	계	228	2.41	0.984		
양육 효능감	①100만원 이상	3	3.04	0.383	0.892 / 0.470	
	②200만원 이상	91	3.14	0.408		
	③300만원 이상	61	3.13	0.435		
	④400만원 이상	45	2.98	0.496		
	⑤500만원 이상	28	3.04	0.508		
	계	228	3.07	0.474		

[표 4-10]과 같이 자녀의 수에 따른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수는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지만( $F=1.567$ ,  $P=0.184$ ) 양육효능감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2.600$ ,  $P=0.037$ ). 분석 결과 1명~3명까지는 꾸준히 양육효능감이 늘어나다 3명 이상부터 양육효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명의 자녀까지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 및 확신이 높아지지만 그 이상부터는 오히려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0] 자녀의 수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기술통계값			F/유의확률(P)	사후검증 결과
		N	평균	표준화 편차		
양육수당 정책 만족도	①1명	131	2.32	1.012	1.567 / 0.184	
	②2명	86	2.50	0.931		
	③3명	6	2.87	1.017		
	④4명	3	1.80	0.200		
	⑤5명 이상	2	3.40	1.131		
	계	228	2.41	0.984		
양육 효능감	①1명	131	3.08	0.481	2.600 / 0.037	③,④ > ②,①
	②2명	86	3.07	0.429		
	③3명	6	2.65	0.545		
	④4명	3	2.82	0.504		
	⑤5명 이상	2	3.77	0.990		
	계	228	3.07	0.474		

### 3. 신뢰도 분석

척도의 신뢰도(reliability)는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 도구로 여러 번 측정 하거나 한 가지 측정 도구로 반복 측정하였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학식 외, 2008, 122p).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흔히 0.8~0.9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1)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표 4-11]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신뢰도 분석

변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825	4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4개의 설문항의 검증의 결과 독립변수인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Cronbach의 알파 값이 .825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4개의 설문 중 어떤 것을 제거하더라도 Cronbach의 알파를 개선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그대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의 알파
양육수당정책 대상의 연령범위	6.840	8.555	.754	.727
양육수당정책의 지원 대상	6.945	8.278	.766	.721

양육수당정책의 지급 방식	7.603	11.087	.565	.816
양육수당정책의 지원 규모	6.434	10.978	.536	.827

##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육효능감의 15개 구성 문항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 Cronbach의 알파 값을 측정하여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15개의 설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제공하는 양육의 전반적 능력과 지식·행동, 자녀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활동 및 능력, 자녀에 관한 이해와 수용, 의사소통 능력, 자녀의 지적 학습에 관한 지도 능력, 자녀를 통제·훈육하는 능력을 15개 문항으로 구성할 경우 Cronbach의 알파 값이 .720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항 제거 없이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4-13], [4-14] 참조).

[표 4-13] 양육효능감의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양육효능감	.720	15

[표 4-14] 양육효능감의 항목 총계 통계량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평균	항목이 삭제된 경우 척도 분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의 알파
1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43.43	44.695	.493	.693
2	부모 역할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	41.97	43.945	.425	.695
3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게 한다	42.77	42.574	.474	.688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다	43.54	46.769	.166	.724
5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14	45.406	.297	.709
6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43.04	55.594	-.372	.781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우려된다	42.35	42.972	.413	.695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42.35	41.817	.502	.684
9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43.90	42.523	.485	.687
10	가끔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42.63	41.381	.538	.679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	43.72	48.371	.081	.731
12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	43.34	43.159	.545	.684
13	주변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43.17	44.790	.349	.703
14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42.18	44.652	.341	.704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43.69	45.158	.320	.706

#### 4. 요인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은 다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바탕을 이루는 공통차원(common underlying dimensions)을 통해 변수를 설명하는 기법이다(이학식, 2008, p.338). 연구에 활용되는 하위 설문(변수)들 간에 공통된 요인들을 찾아서 상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와 관련한 하위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검증을 실시했다. 요인을 추출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4-15]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성분행렬

	성분
	1
소득수준과 무관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	.889
86개월 미만 모든 아동 지원대상 만족도	.879
현금 지원 방식의 만족도	.743
지원규모 만족도 <sup>3)</sup>	.714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a. 추출된 1 성분

3)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다섯 문항 중 ‘현재 양육수당정책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 만족한다’, ‘현재 양육수당정책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 만족한다’ 두 문항을 지원규모 만족도로 범주화하였다.

## 2)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구성하는 15개의 설문 값은 3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되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는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다’,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우려된다’,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등 8개 항목이 같은 요인으로 묶였다. 이 요인을 ‘부모의 전반적 능력’이라고 이름을 부여(naming)하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부모 역할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 ‘주변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게 한다’의 5개로 묶였는데 이를 ‘통제와 훈육의 능력’으로 부여하였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등 2개 항목이 묶였는데 이를 ‘부모역할의 무기력함’으로 명명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4-17]에 제시하였다.

[표 4-16] 양육효능감 성분행렬

성분	1	2	3
1	.700		
2		.797	
3			.793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표 4-17] 양육효능감 요인 분석 결과

	성분		
	부모의 전반적 능력	통제와 훈육의 능력	부모로서의 무기력함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	.806	.008	-.187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다	.796	-.045	-.003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779	.049	.32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우려된다	.725	.001	.289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72	.033	-.051
가끔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664	.229	.195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471	.258	-.014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445	.336	-.017
부모 역할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다	.320	.702	-.311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	.121	.668	.349
주변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017	.652	.162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	.043	.641	.415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게 한다	.461	.489	-.055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269	.184	.782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091	.106	.760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6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 제 3 절 회귀분석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가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와 양육효능감 간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21]에 요약되어 있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F=0.620, p=.809$ ),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2%로 나타났다( $R^2=.042$ ).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1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된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양육수당정책 만족도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090, p=.809$ ).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두 변수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육효능감에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 등을 포함한 잠재적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 역시 양육 효능감에 중요한 변수임에도 현행 양육수당 금액의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표 4-18] 양육효능감에 대한 양육수당정책 만족도의 회귀 분석결과

종속 변수	독립변수	B	S.E	$\beta$	t	p	VIF	
양육 효능감	독립 변수	(상수)	2.527	0.326		7.744***	0.000	
		양육수당정책 만족도	0.044	0.040	0.090	1.122	0.264	1.035
	통제 변수	성별	0.076	0.145	0.050	0.526	0.599	1.487
		연령	-0.082	0.094	-0.077	-0.881	0.380	1.224
		최종학력	0.055	0.052	0.089	1.052	0.294	1.156
		정규직 근로자	0.115	0.161	0.118	0.715	0.475	4.433
		파트타임 근로자	0.056	0.200	0.035	0.280	0.780	2.562
		맞벌이 여부	0.018	0.153	0.019	0.118	0.906	4.071
		월 평균소득	0.007	0.039	0.015	0.175	0.862	1.248
		자녀의 수	0.027	0.070	0.033	0.389	0.697	1.165
		수당수령 자녀나이	-0.033	0.050	-0.061	-0.661	0.510	1.392
		결혼 생활	0.084	0.083	0.099	1.006	0.316	1.550

F=0.620(p = .809),  $R^2=.042$ ,  $_{adj}R^2=-.026$ , D-W=1.981,  $p < .05$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부모의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집단 간 특성 가운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이 낮다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육아에 대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양육수당과 같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선행연구에서 인용한 윤홍식(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이 양육수당정책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연령이 낮은 부모일수록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양육수당정책이 주는 사회적 안정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양육효능감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령’, ‘학력’과 ‘자녀수’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의 특성에서 보면 육아기 자녀를 양육하기에 가장 왕성한 연령대인 30대에게서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 부모가 양육하는 자녀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연령대인 것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분석된다.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에 거쳐 저학년에 이르기까지 30대 부모가 감당하는 자녀의 양육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력의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전문대졸 이하인 부모보다 대졸 이상의 부모가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문태형(2002)과 문혁준(1999)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

보를 접하는 부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대사회의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백종화·박성연(2002)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물론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낮은 양육효능감은 상대적으로 고학력자가 갖는 양육에 대한 현실적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자녀수의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았다. 초산에서 가장 낮은 양육효능감을 보인다는 것은 부모로서의 첫 경험에 갖는 책임감과 심리적 부담감 등으로 인한 심리적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3명 이상의 경우는 표본의 수가 적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에 있어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로는 양육수당정책은 양육에 일정한 지원을 함으로써 육아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만족도를 통해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나아가 양육수당정책이 부모의 양육에 긍정적 효과를 미쳐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국가 정책이 담고 있는 가치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며 정책 속에 내재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역시 바람직스러워야 한다(정정길 외, 2006, pp.36-37). 양육수당정책이 담고 있는 가치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과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함의

2018년 기준 OECD 35개국을 통틀어 0명대의 출산율<sup>4)</sup>을 나타낸 유일한 초저출산율의 국가가 되어 버린 우리나라의 실정은 참으로 암담하다. 우리 정부는 21세기에 들어 국가의 1순위 사회적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내세우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오히려 출산율은 하락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대통령과 7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정책 로드맵 가운데 양육수당정책에 관한 내용을 보면, ‘2019년 5세 미만의 전체아동 100% 지원’에서 ‘2025년 아동수당 지원연령의 점차 확대’라는 추상적인 대상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엔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양육수당정책과 양육효능감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출생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인구 정책만을 전담하는 독립적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실효성 있는 출산율 장려정책을 다루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관련 정책 가운데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수 학자의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송미혜, 2006; 이남경, 2012; 이해영, 2019 등).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수당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의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의도된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인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 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구성과 현장 중심의 실태파악을 통해 출산율로 이어지도록 수시로 사회적 논의 및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양육수당정책이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금전적 보조의 개념으로 국가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

4) 2019년 2월 통계청 발표한 출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이고 2018년 한 해 동안의 신생아는 32만 7천 명에 불과하며 3년 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정양육을, 높을수록 대리양육을 선택한다는 연구(윤홍식, 2010; 최상설·홍경준, 2013; 김두연, 2014)와 같이 소득별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선호와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음에 주목하여 양육수당정책의 내용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문선화(2011)의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과 동일하다. 즉 양육수당의 수준이 실제 보육비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인 가운데 현실의 양육수당정책이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지기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양육수당의 대상, 지원 금액, 일시금 형식의 지원제도 또는 교육보험과 같이 수당을 보험제도로 편입하여 취학 시 학자금 지원제도와 같은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자치단체 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으로 포함시켜 거주지별로 차등 대우하지 않는 실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전적 효과 중심의 양육수당정책이 갖는 물질적 효능감의 한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편주의적인 복지정책이 갖는 정책의 효과성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복지 포퓰리즘의 산물로 등장한 양육수당정책은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양육지원에 대한 ‘국가책임론’의 수준이 적정한지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자녀양육이 개별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여야 한다는 국가책임론이 시대적으로 적합한 흐름이라 하더라도 비현실적이고 외형적인 선심성 정책이 부모의 역할과 역량을 약화시켜 양육포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편주의(universalism)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복지정책은 수요자의 욕구를 부풀리며 다양성을 상실한 양육형태의 획일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부모주도의 자녀 양육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금전적 지원 및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이 지양되고, 선별주의(selectivism)의 요소가 포함되어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양육지원정책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며 후속연구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정밀한 연구설계와 표본의 선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에 국한된 자녀를 둔 부모만으로 한정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표본의 편의(bias)로 인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 한계가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표본의 성비가 일정치 않아 부모 역할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는 다양한 계층,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온라인 설문은 일부는 어린이집을 통하여 배포되었기 때문에 양육자의 솔직한 응답보다는 자기방어기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는 양육효능감을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에 응답 과정의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찰이나 심층 면접 등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아버지의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효과를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더 많은 아버지를 연구대상으로 포함 시켜 부모 역할 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행 양육수당정책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출산을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의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출산의도의 기반이 되는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육수당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정책 요인에 대해 활발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고윤희. (2001). 자녀의 성.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혜. (2014).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혜·이일주. (2015). 양육수당 정책에 대한 부모 인식 및 개선 방안 연구. 20(3). 1-23.
- 고인숙·이숙희. (2010). 열린부모교육. 교육아카데미.
- 국회예산정책처. (2017). 영유아양육지원정책 분석.
- 김두연. (2014). 양육수당 제도의 확대에 의한 부모의 보육형태 및 보육인식에 미친 영향: 아산시 미취학자녀의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나·이소은. (2018). 보육서비스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23-144.
- 김미숙·문혁준. (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 김선영. (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존중감 및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 (2009).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송이·이혜숙. (2014). 양육수당 도입 이후 보육수요 실태 및 보육인프라 다각화 방안.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8(3). 1-246.
- 김시내. (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2013). 복지국가 유형별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 대한 노동권과 모성권 지원정책 비교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115-142.
- 김진이. (2018). 유아의 행복감, 어머니 행복감과 양육행동, 가족환경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09(5). 53-77.
- 김향은. (1999). "자녀의 힘을 북돋우는 부모"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어머니의 역할만족, 의사소통 및 자녀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능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5). 양육지원정책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19).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어린이집 만족도의 매개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자. (2009). 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2012). 자녀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혜진. (2016). 한국 가족정책의 계층화. *사회복지연구*. 47(3). 35-60.
- 류기자. (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나미·윤혜미. (2007).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3(4). 215-236.
- 류현수·이정숙. (2006). 방과후 아동의 감성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4(3). 105-128.
- 문선화. (2011). 국가책임제 보육에 관한 고찰. *한국영유아보육학*. 69(2). 167-189.
- 문태형. (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

- 에 미치는 영향. 37(6). 97-107.
- 박보영. (200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비  
판사회정책. 22(2). 119-153.
- 박성신. (2007). 뇌병변장애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방문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  
능감 및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아.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언어통제유형. 신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채복. (2018). 독일 출산지원정책의 젠더적 함의. 통합유럽연  
구. 9(1). 189-216.
- 박희진·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81-98.
- 백선희. (2012). 0~5세 무상보육 진단과 과제. 젠더리뷰. 24(4). 50-56
- 백종화·박성연. (2002). 어머니 인터넷 이용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보건복지부. (2009). 2009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1).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2).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3).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 (2011). 보육재정 구조와 확충 방안.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4(2). 13-34
- 서혜영. (1991).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 손동기. (2017). 사회적 평형성 제고를 통한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월간 공  
공정책. 141(3). 29-32.
- 송다영. (2009). '자유선택'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  
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28(4). 347-378.

- 송다영. (2010). 가족정책 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페미니즘 연구. 9(2). 83-117.
- 송다영·이선영. (2016). 보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6(2). 123-148.
- 송미혜.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동주·신현정. (2008).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인식 및 요구. 유아교육학논집. 12(6). 153-172.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유정. (2008). 보육·교육비 부담이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28(2). 103-134.
- 신윤정·이현주·김태환·최성은·권지은·이수형·최숙희. (2009). 양육수당 도입방안 마련. 서울보건복지부.
- 심미래. (2007).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지영.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1). 2-13.
- 오현아. (2013).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보육시설 학부모를 대상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혜진·도현심. (201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및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2). 115-129.
- 우희정·이숙. (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위순영. (2016). 놀이기반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유아의 사회성 기술 및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 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해미. (2011). <서평>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 가족과 문화. 23(1). 207-212.
-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 (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안: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윤나리. (2014). 양육지원정책이 기혼취업여성의 조직몰입·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서영·정옥분. (1999). 아버지의 역할과 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0. 101-123.
- 윤희식. (2010). 가구특성과 취학 전 아동양육형태의 자유선택. 사회과학연구. 26(1). 1-25.
- 이경하. (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경. (2012). 직장보육시설 이용만족도가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문숙. (2018).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6(2). 225-234.
- 이병례. (2007). 취업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재. (2016).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확대가 모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진. (2007).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림. (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선. (2009).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의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아동 어머니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신. (2009).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 (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양육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에 관한 연구: 보육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숙. (2017).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정책옹호연합(Policy Advocacy Coalition)의 동학: 정책담론을 통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한독사회과학논총. 27(2). 3-26.
- 이진숙·이슬기. (2013). 젠더관점에서 본 보육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젠더와 문화. 6(2). 85-123.
- 이학식·임지훈. (2008). SPSS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법문사. 서울
- 이혜영. (2019). 어린이집의 자녀양육지원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선. (1997).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관한 부모의 인식. 한국영유아보육학. 11(3). 205-219.
- 임한나. (2011). 부모교육 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 및 양육지식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연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대상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희수·허계형·손병덕. (2018). 장애아동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5(5). 77-100.
- 전은영. (2004).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에 따른 유아의 자아 개념과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인옥·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전주혜·박정윤.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27-150.
- 정성호. (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정길. (2006).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 정혜인. (2003). 어머니의 양육 신념 및 양육 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혜. (2007). 독일의 양육 관련 법제와 출산장려정책. 공법학연구. 8(3). 561-592.
- 조정신·황성원. (2004).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체제가 한국의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한국영유아보육학. 36(2). 45-72.
- 주보혜. (2010).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가 여성 유급노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신정화·구현경·박선영·한현아·최단비. (2008).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지식수준 및 요구도. 아동학회지. 29(5). 227-242.
- 최상설·홍경준(2012). 아동돌봄 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9(3). 29-57.
- 최슬민. (2014). 양육수당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미치는 영향: 이상적인 양육 방식과 현재 양육 방식의 일치여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승아. (2012). 일·가정양립의 관점에서 본 유연근무제: 전략적 선택인가. 젠더 함정인가?. 가족과 문화. 24(4).
- 최은영. (2010). 한국 아동양육의 난맥상: 양육수당의 문제점. 월간 복지동향. 143. 4-7.
- 최해숙. (2008).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경현. (2010).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의 연관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30. 163-196.
- 한영선. (2014). 정부의 자녀양육 보조금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

- 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6). 89-107.
- 한윤옥. (2012). 양육지원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남재·석재은(2011). 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사회복지정책. 38(2). 139-163.
- 홍계옥. (2003).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 한국아동학회지. 22(2). 181-194.
- 홍승아. (2011). 양육수당제도의 젠더효과에 관한 연구, 비판과 대안을 위한 비판사회정책. 31. 85-119.
- 황보민주. (2010). 사회적 지지가 취업기혼여성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국외문헌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ilbert, N., & Terrell, P. (2002).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Allyn & Bacon.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Luster, T., & Kain, E. L. (1987). The relation between family context and perceptions of parental efficacy.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9(3), 301-311.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부록〉 설문지

## 양육수당정책의 만족도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 양육수당은 보편주의 복지의 대표적 정책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효과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육수당이 아동의 부모들로 하여금 양육에 어느정도의 자신감을 주고 있는지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양육수당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통계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또한 설문에 응해주신 귀하의 인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한성대학교

연구자: 김 가람

I. 다음은 개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불교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학졸 ⑤ 대학원 이상

5. 귀하의 근로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정규직 근로자 ② 파트타임 근로자 ③ 무직(미취업)

6. 귀하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안하고 있음 ② 하고 있음

7. 귀하의 가정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00만원 ~199만원 ② 200만원 ~299만원 ③ 300만원 ~399만원  
④ 400만원 ~499만원 ⑤ 500만원 이상

8. 귀하의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9. 양육수당을 현재 지원받고 계십니까?(①선택시 '9-1번'으로)

- ① 현재 받고 있다 ② 과거에 받았었다

9-1. 귀하의 자녀 중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자녀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 ① 0~2세 ② 2~4세 ③ 4~6세 ④ 6세 이상

10. 귀하의 결혼 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년)

Ⅱ. 다음은 양육수당정책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입니다.

1. 86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차등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고 있는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선정에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대상 아동 부모의 계좌로 현금 지원되는 지급방식에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현재 양육수당은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현재 양육수당은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 만족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Ⅲ. 다음은 귀하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번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 부모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 부모 역할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3. 부모 역할은 나를 지치게 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4.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이 많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기르기에 대한 책을 더 읽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과 다르게 키울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우려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부모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좋은 부모가 될 것 같지 않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0. 가끔 아이를 소홀히 대하는 데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1.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잘 해내는 것은 나의 능력 중 하나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2. 부모 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3. 주변 부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아이를 훈육하는데 비교적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4. 아이를 키우며 사랑과 훈육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5. 아이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Home Childcare Allowance and Parenting Efficacy

Kim, Ga-Ram

Major in Counseling of Social Welfare

Dept.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At the time of adoption of the Home Childcare Allowance policy , the beneficiary was only receiving 100,000 won per month for infants under 24 months belonging to the "households lower income group ". The demand for childcare allowance h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children eligible for childcare fees has expanded in 2012 and 2013, and it has begun to provide childcare allowance to all families who do not use childcare facilities from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allowance policy and parents' parenting efficacy and to examine how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ffect parenting efficacy.

In this way, parents can find out what kind of problems they have and what improvements are being made in their current child care policies, and how they affect parents' parent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300 parents who receiving or

had received childcare allowance and who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especi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surveys with the help of four childcare facilities in Namyangju and Guri City.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distributed by the present researchers were analyzed for 228 copies of the final research questionnaires after excluding invalid responses to the stat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group characteristics of satisfaction of the childcare allowance policy according to 'age'. Second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 parenting efficac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ge', 'education' and 'number of children'. 1) In terms of age, parenting efficacy was the lowest among those in their 30s who were the most vigorous aged to raise children. 2)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higher the parenting efficacy. 3) The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umber of children show that the lower the number of children, the lower the response to parenting efficacy. Thirdly,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of childcare allowance policy and parenting efficacy. In general, it can't not prove the reasoning that the childcare allowance policy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arenting efficac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satisfaction of the childcare by providing the certain support to the parenting. Furthermore, the positive function of childcare policy suggests that it can not support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provide some assistance in achieving the national policy goal of raising the birth rat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ed; Firstly, a overall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innovatively constructed to develop an effective birth promotion policy by creating an independent

control tower dedicated to children's population policy. Secondly,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analysis should be done urgently at the national level where academics are participating in the question of what problems should be solved in order for the childcare allowance policy to lead to parenting efficacy. Thirdly, the limitation of the material efficacy of the monetary benefit centered childcare allowance policy will be limited in itself.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alistic welfare policy will be limited, the policy of childcare allowance which emerged as a product of welfare populism should be reconsider the overall policy direc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level of 'national accountability' for child support is appropriate. In other words, although the 'national accountability theory' that should be shared together and childcare is not the problem of the individual family but of the state is a trend suitable for the times, we should discuss whether the unrealistic and external policy is the role and capacity of the parents close to 'giving up' or not.

[Key words] Home Childcare Allowance Policy, Parenting Efficacy, Policy Satisfaction